

한국, 중국, 대만의 '민주화'에 대한 이해*

— 영화 <화려한 휴가>의 관객평론을 중심으로

이가영**

【목 차】

1. 한국, 중국, 대만에서의 <화려한 휴가>
2. 영화 <화려한 휴가>에 대한 중국 관객의 수용
3. 영화 <화려한 휴가>에 대한 대만 관객의 수용
4. 영화 <화려한 휴가>에 대한 한국 관객의 수용
5. 맺는말

【초록】

본 연구는 영화 <화려한 휴가>를 민주주의와 민주화운동에 대한 기억을 보존·전승하고 재현·확산 시키는 영상 텍스트로 보고, 한국, 중국, 대만의 관객을 영상텍스트의 의미코드를 이해하고 자신의 경험지평을 토대로 영화를 해석하는 '능동적 수용자'로 인식함으로써, 영화 <화려한 휴가>에 대한 해독 방식과 사회·문화적, 개인적 의미생산 방식을 살펴본다. 또한 영화 해독 방식과 관객이 영화를 해독하는 방식 저변에 깔린 사회·문화·정치·제도·역사의 영향 관계를 분석한다. 그리고 이를 통해 아래의 3개의 연구문제에 대한 답을 찾고자 한다.

연구문제1) 한국, 중국, 대만 수용자는 <화려한 휴가>를 어떻게 해독하였는가?

연구문제2) 한국, 중국, 대만 수용자는 <화려한 휴가>의 시공간적 배경이자 시대적 배경인 518광주민주화항쟁을 어떻게 인식하고 있는가?

연구문제3) <화려한 휴가> 영화를 접한 한국, 중국, 대만 수용자의 민주화운동에 대한 인식태도는 각각 어떠한 공통점과 차이점을 보이는가?

【키워드】 <화려한 휴가>, 관객평론, 관객수용이론, 민주화, 경험지평

* 이 논문은 2018년 대한민국 교육부와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 (NRF-2018S1A5B5A07070758) 이 논문은 5·18연구소 2018국제학술대회에서 발표한 것을 수정 보완한 것이다.

** 전남대학교 중어중문학과 시간강사 (zgljiaying@naver.com)

1. 한국, 중국, 대만에서의 <화려한 휴가>

한국과 중국, 그리고 대만 삼국¹⁾은 각각 민주화 운동²⁾이라는 공통분모를 지닌 5·18광주민중화운동, 이이팔사건(二二八事件)³⁾ 및 미려도사건(美麗島事件)⁴⁾, 천안문사건(天安門事件)⁵⁾이라는 역사적 사건을 경험하였다. 각각의 사건 이후 한국, 중국, 대만은 각기 다른 정치·경제·사회·문화적 환경에 따라 민주화운동과 민주주의에 대한 상이한 관점을 형성하게 되었으며, 그에 대한 상이한 평가를 내리고 있다. 또한 한국, 중국, 대만은 시민의식과 민주주의에 대한 의식의 성숙 및 시대적 요구에 따라 민주화운동 혹은 민주주의에 대한 독특한 사회적 담론과 사회문화적 코드를 생산해내었다.

그 중, 한국은 5·18광주민중화운동 외에도 3·15 의거, 4·19혁명, 6·3한일회담 반대운동, 3선 개헌 반대운동, 유신헌법 반대운동, 부·마 항쟁 및 6·10 항쟁을 비롯하여 최근의 촛불시위에 이르는 일련의 민주화 운동을 통해 정치적 민주주의 외에도 사회적 민주주의, 경제적 민주주의, 일상적 민주주의 등을 쟁취하였으며, 민주주의의 모범국가로서 발돋움하였다. 이 같은 사회적 분위기 속에서 한국의 민주화담론은 대중들이 쉽게 공감할 수 있는 문학, 영화, 연극 등의 문화콘텐츠를 통해 계속적으로 재해석·재생산되며 대중에 의해 소비되고 있다. 그리고 민주화 담론을 해석한 문화콘텐츠는 한국뿐만 아니라, 비슷한 민주화 운동의 경험을 가지고 있

- 1) 대만을 하나의 국가로 보는 데에는 여전히 논란의 여지가 있다. 그러나 필자는 본 연구에서 대만과 중국을 하나로 보는 관점은 옳지 않다고 판단한다. 대만과 중국대륙은 역사·문화·사상·담론에 있어 매우 큰 차이를 보이고 있기 때문에 동일한 영화에 대한 대만과 중국의 관객의 평가는 상이할 수밖에 없다. 따라서 본고에서 대만을 하나의 국가로 보고, 영화에 대한 대만과 중국의 관객의 평가를 각각 살펴보기로 한다.
- 2) 억압으로부터 자유와 자율을 확대시키고, 인간의 기본적 권리를 수호하고, 민주주의를 진전시키는 운동, 냉전체제·진영논리를 벗어나 민족의 자주성을 확보하려는 운동이나 통일운동, 민중의 생존권과 더 나은 삶을 위한 투쟁은 어느 것이나 민주화운동으로 볼 수 있다. 참조 『한국민주화운동사』,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2008, p.15.
- 3) 2·28사건(二二八事件)은 1947년 2월 28일부터 같은 해 5월 16일까지 대만 전역에서 일어난 민중봉기이다. 대만의 다수 주민인 본성인(本省人)들이 중화민국 정부 관료의 폭정에 불만을 표하며 항쟁을 일으키자, 중국국민당을 위시한 외성인(外省人)들이 본성인을 폭압적으로 학살한 사건을 일컫는다. 대만에서는 2·28사건을 2·28대학살, 2·28혁명, 2·28봉기, 2·28사변 등으로도 부른다.
- 4) 미려도사건(美麗島事件)은 1979년 12월 10일, 정치잡지 『미려도(메이리다오, 美麗島)』를 중심으로 국민당을 제외한 정치집단들이 국민당 일당독제에 항거하여 집회 시위를 벌인 사건이다. 당시 국민당의 중화민국 통치에 반대하던 국민당 외의 정치적 인사들은 정당을 결성하려는 목적을 갖고 잡지 『미려도』를 발간한다. 이후 1979년 12월 10일 가오슝(高雄)시에서 『미려도』를 중심으로 하는 시위대와 경찰 간의 충돌이 발생하여, 시위 주최자들이 다수 구속되었다. 이 사건은 중화민국의 국민당 외의 세력이 직접적으로 국민당 정부와 충돌한 정치적 사건으로, 이 사건의 중심 세력은 이후 민진당을 창설하고 대만에 복수정당제를 구현(1986)하였다. 현재 미려도 사건은 오늘날 대만의 의회제 민주주의 발전의 기반이 되었으며, 중화민국의 민주화에 미친 영향이 대단히 크다고 평가 받는다.
- 5) 6·4천안문사건은 1989년 6월 4일, 후야오방의 사망 이후 민주화를 요구하며 학생과 시민들이 벌인 반정부 시위를 중화인민공화국 정부가 유혈 진압한 사건이다. 급진 개혁주의자였던 후야오방의 사망을 계기로 하여 정치개혁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확산되면서, 1989년 전국의 대학생들과 시민 중심의 민주화 운동이 전개되었다. 이에 당시 국무원 총리 리펑은 베이징에 계엄령을 선포하고 천안문 광장에서 시위 군중을 무력으로 진압하여 약 일만 오천 명 이상의 사상자를 낳는 유혈사태를 일으켰다.

는 중국과 대만의 민중들에게 큰 공감을 얻음은 물론, 적지 않은 반향을 일으켰다. 그 중, 한국은 물론 중국과 대만에서 큰 호응을 얻은 대표적인 작품으로는 영화 <화려한 휴가>를 꼽을 수 있다.⁶⁾

영화 <화려한 휴가>는 한국과 대만에서 정식 개봉된 영화이다. 영화 <택시운전사>가 2017년 8월 2일 한국에서 개봉한 이후, 약 한달 후인 2017년 9월 8일 <택시운전사>가 대만에서 개봉한다. 그리고 <택시운전사>의 흥행 성공과 함께 5·18광주민주화운동에 대한 대만인들의 관심에 힘입어 영화 <화려한 휴가>는 2018년 2월 28일, 한국에서 개봉한지 11년 만에 대만에서 뒤늦게 정식 상영된다. 중국의 경우에는 영화 <화려한 휴가>가 정식으로 유통 및 배급되지 않았으며, 현재 영화의 유통 및 상영이 금지되어있다. 그러나 중국에서는 여전히 배급사를 통한 정식적 루트 외에도 인터넷을 통한 P2P, SNS 등을 활용한 콘텐츠 다운로드가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으며, 심지어 정치·사회적 문제로 인해 정책적으로 금지된 영화마저 인터넷을 통해 쉽게 접할 수 있다. 이는 여러 정치적·사상적 문제로 인해 중국인들이 중국에서 정식 상영하지 않은 <화려한 휴가>를 중국에서도 다양한 경로를 통해 접할 수 있음을 의미한다. 더욱이, 앞서 언급했다시피 대만에서 <화려한 휴가>가 정식 개봉 되었으며, 이에 따라 정식으로 번역되어진 자막이 제공되었다는 점은 언어적인 차원에서 볼 때, 중국인들이 영화 <화려한 휴가>에 더욱 용이하게 접근 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였다.

그러면, 한국의 역사적 사실을 영화화 한 <화려한 휴가>가 이처럼 한국을 비롯하여 대만과 중국에서 유통되고 소비되는 이유는 무엇일까? 사실 한국의 5·18민주화운동을 시공간적 배경으로 삼고 있는 영화 <화려한 휴가>는 한국의 관객은 물론 비슷한 역사적 사건을 직·간접적으로 경험했던 중국과 대만 관객의 의식·무의식 속에 잠재된 사회문화적 코드(symbolic codes)와 담론(discourses)이라는 '사회적 욕망(민주화에 대한 갈망)'을 자극한다. 이 자극으로 인해 한국, 중국, 대만의 관객은 영화에 스스로의 경험을 투사하게 되고, '능동성'을 발휘하며 영화를 '해독(decoding)' 하게 된다. 그리고 그들은 영화를 소비함과 동시에 '자신의 문화적, 개인적 의미를 생산'하게 된다. 환언하면, <화려한 휴가>를 받아들이는 관객은 자신의 과거 '경험지평'을 통해 영화텍스트를 이해함과 동시에, 영화를 통해 얻은 새로운 경험지평을 가지고 자신의 과거 경험지평을 재구조화시키고 변형시킨다는 것이다.⁸⁾

이는 중국과 대만의 민중들이 영화 <화려한 휴가>를 통해서 한편으로는 한국 민중의 민주화에 대한 갈망과 역사에 대한 인식을 평가하고, 다른 한편으로는 자국의 민주화의 역사, 의미 등을 비교해보고 반추할 수 기회를 마련하였음을 의미한다. 즉, 사회·문화적 관점에서 볼 때, 영화 <화려한 휴가>는 중국과 대만의 관객에게 민주화 운동에 대한 각각의 '풀뿌리의 기

6) 영화진흥위원회의 통계에 따르면, <화려한 휴가>의 누적 관객 수는 6,855,433명이다. 이 영화는 역대 박스오피스 51위에 랭킹될 정도로 대중적 공감과 관심을 받았다. 이러한 성적표는 흥미위주를 떠나, 우리의 민주화 역사를 올바르게 되짚어보고 이를 재평가하고자 하는 성숙한 민주화 시민 의식이 어느 정도 반영된 결과라 할 수 있다.

7) 이계영·최정기, 「한·중 인터넷 이용자들의 한국 영화 이해에 관한 비교 연구: <엽기적인 그녀> 영화 사이트의 관람후기 게시판을 중심으로」, 『한국언론정보학보』, 34호, 2006, pp.196-243.

8) 영화 <화려한 휴가>의 시공간적 배경인 한국의 5·18광주민주화운동은 중국의 6·4천안문사건과 대만의 2·28사건 등과 함께 동아시아의 민주주의 발전에 큰 영향을 미친 사건이라 할 수 있다.

역과 그에 대한 평가'를 내릴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해주었으며, 시대적·이데올로기적·정치적 가치를 지닌 대중 영상 콘텐츠로서 관객의 공감대를 형성하도록 하였다.

수용이론의 관점에서 보면, 영화는 수용자의 '해석적 힘과 반응'에 따라 다양한 영상텍스트로써 존재할 수 있다. 즉, 관객이 영화를 일차적으로 받아들이는데 그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독특한 배경지식을 바탕으로 해석하고 반응을 이끌어 냄으로써 텍스트의 의미 구조를 새롭게 형성하며, 이러한 의미 구조는 끊임없이 생성되고 변형'⁹⁾된다는 것이다. 이에 본 연구는 영화를 문화적 기억을 보존·전승하고 재현·확산 시키는 영상 텍스트로 보고, 관객을 영상텍스트의 의미코드를 이해하고 자신의 경험지평을 토대로 영화를 해석하는 '능동적 수용자'로 인식한다.

따라서 한국과 중국, 그리고 대만의 관객이 영화 <화려한 휴가>를 어떠한 방식으로 해독하고, 어떠한 사회·문화적, 개인적 의미를 생산해내고 있는가를 살펴보면, 한국, 중국, 대만 관객간의 해독 방식과 생산된 의미간의 차이를 비교 분석하는 작업은 한국, 중국, 대만의 그 문화적 저변에 깔려있는 '민주화'와 관련된 사회문화적 코드와 담론을 밝히는데 매우 유효하다고 할 수 있다. 또한 이를 통해 민주화 및 민주화운동에 대한 동아시아 국가 간의 해석 차이에 대해서도 살펴볼 수 있다.

상술한 연구를 위해 본 연구는 한국, 중국, 대만의 일반 관객이 작성하여 인터넷에 업로드한 영화평론을 주 연구대상으로 삼아, 관객수용이론의 관점에서 관객의 영화 해독 방식과 관객이 영화를 해독하는 방식 저변에 깔린 사회·문화·정치·제도의 영향관계를 분석하고자 한다. 또한 이를 통해 아래의 3개의 연구문제에 대한 답을 찾고자 한다.

연구문제1) 한국, 중국, 대만 수용자는 <화려한 휴가>를 어떻게 해독하였는가?

연구문제2) 한국, 중국, 대만 수용자는 <화려한 휴가>의 시공간적 배경이자 시대적 배경인 518광주민중항쟁을 어떻게 인식하고 있는가?

연구문제3) <화려한 휴가> 영화를 접한 한국, 중국, 대만 수용자의 민주화운동에 대한 인식태도는 각각 어떠한 공통점과 차이점을 보이는가?

본 연구는 한국, 중국, 대만의 관객들이 영화 <화려한 휴가>를 해독하고 수용하는 방식을 살펴보기 위해, <화려한 휴가>에 대한 한국, 중국, 대만 관객의 영화감상문, 영화평론, 댓글 등을 주요 연구대상으로 삼는다. 특히 <화려한 휴가>와 관련하여 세 국가의 대중들은 영화평론사이트, 블로그(blog), SNS, 댓글 등을 통해서 다양한 의견을 제시하였기 때문에 '인터넷 공간'속에 나타난 영화평론은 본 연구의 주요한 분석 대상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인터넷이라는 특수한 공간이 지닌 경계의 광활함과 모호함으로 인해, 그 분석 대상 역시 분명치 않다는 한계를 갖는다. 따라서 본 연구는 한국, 중국, 대만에서 각각 이용자 수가 많고 가장 활성화 된 영화 관련 사이트를 선정하였다. 중국의 리뷰는 중국의 대표적인 영화평론 사이트인 時光網에 업로드 된 영화 리뷰로, 대만의 리뷰는 대만 최대 블로그 사이트인 痞客邦에 업로드 된 영화 리뷰로, 그리고 한국의 리뷰는 한국 최대 포털 사이트인 NAVER의 영화 플랫폼

9) 변학수, 『문학치료』, 서울: 학지사, 2013, p.256.

에 업로드 된 영화 리뷰로 한정한다.

2. 영화 <화려한 휴가>에 대한 중국 관객의 수용

현재¹⁰⁾ 时光网에 업로드 된 <화려한 휴가>의 영화 리뷰는 총 76편이며, 그 중 장편의 영화리뷰는 20편, 210자 이내의 짧은 리뷰는 56편이다. 사실 时光网에 기록을 살펴보면, 지금까지 时光网 웹사이트를 이용하여 남긴 <화려한휴가> 리뷰는 총 213편이다. 그러나 현존하는 평론은 총 76편에 불과하다. 이는 时光网의 내부적 심사를 위시로 한 중국 정부의 인터넷 검열로 인한 결과라 보인다. 실제로 时光网을 이용하는 <화려한 휴가>의 관객 중 다수는 중국 정부와 时光网의 인터넷 검열 및 상영금지조치에 대해 불만을 토로한다. 'Altair'는 “원래 영화리뷰 같은 것을 쓰려고 했는데, 지금 할 수 있는 말이 이 한마디 밖에 없네. 이 영화 금지된 거야 뭐야? 어째서 时光网에서 (영화를 볼 수 있는) 링크가 없는 거지?”¹¹⁾라고 말하며, 중국 최대 영화관련 사이트 중 하나인 时光网에서조차 영화를 볼 수 없게 된 현실에 불만을 토로하였으며, 'HoneyBunny'는 “방금 <화려한휴가>를 다 보고나서 영화 리뷰를 쓰려고 했는데, 时光网에 이 영화와 관련된 정보들이 다 삭제되었다는 걸 방금 알았어.....”¹²⁾라고 하며, 영화 <화려한 휴가>와 관련된 정보마저 모두 삭제되었다는 사실을 다른 관객들과 공유한다. 심지어 익명의 한 관객은 “심지어 댓글조차 못 달다니, 진짜 할 말이 없다. 자기가 하고 싶은 말도 다 걸려서 해야 되고, 이놈의 사회는 거짓말로 진실을 대신하려 하네.”¹³⁾라며, 아주 직접적으로 인터넷 검열에 대해 비판하고 있으며, '大jj炮'는 “엄청나게 많은 댓글들이 다 삭제당한거야?”¹⁴⁾라는 댓글을 남기며, 현존하는 댓글은 대부분 정부의 검열을 거친 것임을 지적한다. 이처럼 영화 자체를 구하기 힘든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다행히 적지 않은 사람들은 P2P, SNS 등을 활용하여 영화 <화려한 휴가>를 관람하였으며, 그 리뷰를 공유하고 있다. 'Ann ie1638498'는 “이 영화가 중국에서 상영금지를 당했기 때문에, 이 영화를 본 사람은 얼마 안 될 것 같아. 그런데 한마디로 이 영화를 말하자면 정말로 불만한 가치가 있는 영화야”라고 하며, 영화를 추천한다.

时光网에 업로드 된 영화 <화려한 휴가>의 리뷰들을 살펴보면, 비록 검열의 흔적이 다소 보이기는 하나, 여전히 중국 정부가 금기시 하는 '6·4천안문사건'이나 '문화대혁명'등을 언급하는 리뷰들이 존재함을 알 수 있다. 또한 중국 정부에 대한 부끄러움이나 중국의 역사에 대한

10) 영화 <화려한 휴가>에 대한 중국 관객의 리뷰는 2018년 11월 25일을 기준으로 한다.

11) 本来想写点感想什么的, 可是现在我只有一句话, 这片子是被禁了还是怎么? 为什么在时光网上没有链接?
<http://i.mtime.com/charles/blog/834768/>

12) 我刚看完《华丽的休假》, 打算写一句话影评, 可发现时光上的相关资料被删了.....
<http://movie.mtime.com/52683/reviews/short/new-2.html>

13) 连个帖子都发不了 真没什么可说的. 自己想说的都被过滤了 这个社会谎言代替了真实.
<https://tieba.baidu.com/p/240859350?pn=1>

14) 很多贴被删了吗?
https://tieba.baidu.com/p/2469918241?red_tag=0483535539

반성 등 비교적 민감한 내용에 대해서도 매우 직접적으로 서술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지금까지의 조사에 따르면, 중국의 관객은 영화 <화려한 휴가>에 나타난 한국의 민주화 운동을 둘러싸고, 매우 다양한 태도를 취하고 있다. 중국의 관객은 한국의 민주화 운동과 민주주의 그리고 5·18광주민주화운동에 대해 긍정 혹은 부정적으로 평가하기도 하고, 5·18광주민주화운동을 통해 중국의 비극적 역사를 투사하기도 한다. 그리고 5·18광주민주화운동이라는 다소 민감한 소재를 영화화 하였다는 사실에 긍정적인 평가를 내리면서, 중국은 여전히 비극적 역사에 대해 회피하거나 은폐하려고 한다고 지적한다. 또한 5·18광주민주화운동에 대한 중국인들의 인식 부재로 인해 5·18광주민주화운동을 잘못 인식하고 있는 경우도 있었다.

영화 <화려한 휴가>에 대한 중국인의 리뷰를 정리해 보면, 5·18광주민주화운동과 민주주의에 대한 중국인의 관점은 크게 네 가지로 나누어 볼 수 있다. 그 중, 첫 번째는 영화에 나타나는 5·18광주민주화운동을 통해 6·4 천안문사태에 대한 기억을 재구성하고, 자국의 민주화 운동에 대해 평가하고 반성하는 태도이다. 중국은 1989년 6월 4일 북경 천안문광장에서 민주화를 외쳤으나, 결국 좌절된 경험을 갖고 있다. 따라서 중국인들은 ‘6·4천안문사건’이라는 프리즘을 통해 5·18광주민주화운동을 이해함과 동시에, 영화를 통해 새롭게 이해하게 된 한국의 민주화 운동을 통해 자국의 민주화 운동에 대한 이해를 재구조화 한다. 사실, 현재 중국에서는 6·4천안문사건이 아예 금기시 되고 있다. 심지어 10대 20대의 젊은 중국인들은 6·4천안문사건에 대해 잘 모르는 경우도 많다. 이에 대해 익명의 관객은 “어떻게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우리 조국의 64(6·4천안문사건)가 바로 이런 부류의 사건인 것을 모르고 있는거지?”¹⁵⁾라고 물으며, 6·4천안문사건과 5·18광주민주화운동이 비슷한 성격을 지닌 민주화운동이었음을 지적한다. 또 다른 익명의 관객은 “64를 떠올리지 마. … 몇 년이 지나면서 화해한지 오래됐잖아. 기억하는 사람도 없고, 역사는 스스로 잊혀져버려서 다른 사람이 왜곡해도 탓할 수도 없어.”¹⁶⁾라고 6·4천안문 사건을 언급하면서, 천안문사건으로 대표되는 중국의 민주화운동이 이미 많은 사람들에게 망각되고 있음을 고백하며, 지금의 현실을 풍자적으로 비판한다. 이처럼 6·4천안문사건을 언급하는 대부분의 글들은 모두 익명으로 작성되었으며, 실명으로 글을 작성하는 경우에는 직접적으로 천안문사건을 언급하지 않고, “정말 끔찍하게도 89년 6월 4일이 떠올랐어. 왜냐하면 묘하게도 그 날이 사촌동생이 태어난 날이거든.”¹⁷⁾등과 같이 돌려서 천안문사건에 대해 이야기 한다.

두 번째는 한국의 5·18광주민주화운동과 한국의 민주주의에 대해 긍정하는 태도이다. 5·18광주민주화운동에 대한 긍정적인 평가는 대체로 한국의 민주화운동에 참여한 이들에 대한 긍정적인 평가로 귀결된다. 실제로 많은 관객들은 민주주의를 외치며 스러져간 수많은 사람들

15) 怎么那么多人都不知道我们祖国的64就是此类事件?

<http://i.mtime.com/jasonshih/blog/877197>

참조) 중국에서는 인터넷 검열이 매우 엄격한 편이라, 천안문사건 혹은 6·4천안문사건이라는 키워드를 사용하는 경우 검열에 걸리게 된다. 따라서 대부분의 네티즌들은 6·4천안문사건이라는 명칭보다 64, SIX 4, six four 등의 명칭을 사용하여 6·4천안문사건을 지칭한다.

16) 别想SIX 4 …… 过了N年 被和谐久了 也没人会记得了 历史被自己遗忘 也不能怪别人来篡改。

<http://i.mtime.com/laolang/blog/851923/>

17) 真的是很无奈,想起89年的6月4号,因为巧了是表弟出生的日子。

<http://i.mtime.com/xiaoyadigua/blog/859922>

의 죽음을 애도하며, 그들의 죽음이 헛된 죽음이 아니었음을 기억한다. 'dongle2001'은 “혁명은 밥상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다. 민주 자유는 피 흘리는 희생이 있어야만 한다.”¹⁸⁾라고 지적하며, 지금 한국에서 누릴 수 있는 민주와 자유가 그저 얻어진 것이 절대 아니고, 민주주의를 위한 여러 사람들의 희생을 발판으로 쟁취한 것임을 상기한다. 그리고 ‘掉毛的毛巾’은 “돌아가신 분이든 아니면 살아남으신 분이든 ‘광주사건’에 참여했던 학생과 시민들에게 존경을 표한다. 어찌됐든 시간이 모든 것을 증명할 것이다. 시간이 역사를 돌이켜 명백하게 할 것이다.”라며, 5·18광주민주화운동에 대한 진상규명이 여전히 제대로 진행되지 못한 현실에 대하여 안타까운 마음을 나타내고 있음과 동시에, 518광주민주화운동에 참여한 모든 사람에 대한 존경의 마음을 드러내고 있다.

세 번째는 비극적 역사에 대한 한국의 반성적 태도를 긍정적으로 평가하며, 동시에 문화대혁명, 천안문사건 등 중국에서 금기시하는 역사에 대한 은폐 및 회피의 시도를 부정적으로 평가하는 태도이다. 중국의 비극적 역사에 대한 중국인들의 영화 리뷰를 살펴보면, 5·18광주민주화운동이라는 비극적인 역사를 영화화 하였다는 사실 자체에 대해 많은 중국인들이 높이 평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 같은 중국인들의 평가는 중국에서는 과거 중국의 비극적 역사가 제대로 영화화 되고 있지 못함을 반증한다. 특히, 많은 관객들은 한국과 중국을 직접적으로 비교하며, 지난 과거에 대해 반성하지 않는 중국 스스로를 비판하고 있다. ‘初恋电影’은 “물론 실망스러운 부분도 많지만, 그래도 한국의 관객들이 부러워. 공공장소인 영화관에서 ‘여러 사람들이 무리지어’ 차마 돌이켜 보기 힘든 자국 역사 한 편을 들여다볼 수 있는 민족, 그리고 감히 상처를 직시할 수 있는 민족에게는 희망이 있으니까.”¹⁹⁾라며 과거 역사에 대한 한국의 회고와 반성하는 태도에 대하여 대단히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 부러운 마음을 숨김 없이 나타낸다. 또한, ‘呷小凯’는 “역사는 잊어서는 안 되는 것이다. 우리는 결국 그 시기들을 마주보아야 할 것이다. 비록 지금은 많은 말을 할 수 없지만, 사실은 사실이니까. 무고하게 죽어간 시민들에게 존경을 표한다. 용감한 한국인이여!(단지 이 영화에 대해서라고 스스로 위로한다) 우리는 여전히 너무나도 용기도 없고 나약해!”²⁰⁾라며, 한국의 반성적 태도와 역사적 인식에 대해 존경을 표하며, 중국 스스로에 대해 과거를 제대로 바라볼 용기조차 없는 나약한 존재라고 비판하고 있다. 이 외에도, ‘哗啦啦’는 “모든 국가들이 자신의 숨기고 싶은 아픔을 당당히 복제해 낼 수 있는 용기를 지닌 것이 아니다. 그것도 유명한 스타들이 나오는 상업영화로 만드는 것은 더 더욱이나.”²¹⁾라고 지적하면서 역사적 비극을 상업영화로 만들기 위해서는 배우와 감독의 결단이 필요하며, 그 결단을 내리기 위해서는 용기가 필요했음을 설명

18) 革命不是请客吃饭；民主自由必须流血牺牲。

<http://movie.mtime.com/52683/reviews/short/new.html>

19) 当然，尽管有着不少的失望，我还是比较羡慕韩国的观众，能够“成群结伙”的聚集在公共场合——电影院里回顾本国不堪回首的一幕，敢于直视伤疤的民族是有希望的。

<http://i.mtime.com/fkmd/blog/828631/>

20) 历史是不会忘记的，有些时期我们终究是要去面对，即便很多话现在不让人说，但是事实就是事实，向那些无辜死去的百姓们致敬，勇敢的韩国人！（仅凭此片 聊以自慰）我们还是太懦弱了！

<http://movie.mtime.com/52683/reviews/short/new-2.html>

21) 不是所有的国家都具备将自己的隐痛堂而皇之的予以复制的勇气，而且是制作成明星阵容的商业大片。

<http://i.mtime.com/hualala/blog/871154>

한다. 또한 이와 비슷한 맥락에서 ‘Alfe’는 “한국인들의 과거를 직시하고 역사를 반성하는 정신만으로도 이 영화는 박수를 받아 마땅해.”²²⁾라고 평가하며, 이 영화의 의의를 ‘역사에 대한 반성’에 두었다. 이처럼 중국인들은 영화 <화려한 휴가>를 통해 한국의 역사의식에 대해 대단히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 스스로를 비판하는 계기를 마련하였다. 특히, ‘原野中的秋风’의 “난 그냥, 중국의 문화대혁명이나 난징대학살 같은 역사에 대해 몇 명이나 영화로 만들어 낼 수 있을까 생각해봤어.”²³⁾라는 글에 달린 ‘frey1983’의 “영화화 하지 못할 거야. 책 속에 기록을 볼 수 있는 것만으로도 된 거지. 괜히 영화 이야기를 꺼내서 곤란한 상황이 되지 않도록 해.”²⁴⁾라는 댓글은 정부의 삼엄한 감시아래 모든 문예가 통제되고 있는 현재 중국의 상황을 매우 정확하게 보여주고 있다고 할 수 있다. 그리고 심지어 ‘dasdasurt’는 “세계 모든 민족은 모두 재난을 겪는데, 문제는 이 재난을 어떻게 다루느냐에 달렸다. 한국인은 역사를 거울로 삼는다. 나는 그들에게 다시는 이러한 일이 생기지 않을 것이라 확신한다. CHINA(중국)인들은 이러한 희생을 당연한 것으로 생각하니, 언젠가는 다시 한 번 그 대가를 치르게 될 날이 올 것이다. 그 때가 되면 나 역시 비굴한 놈이 될 것이다. 비굴한 놈이 좋다. 죽을 필요 없이, 개처럼 살아가니.”²⁵⁾라며, 한국과 중국을 비교하며 중국에 대해 매우 강한 어조와 다소 과격한 표현으로 비판하고 있다.

네 번째는 5·18광주민주화운동이나 민주주의에 대한 부정적 평가 혹은 5·18광주민주화운동의 결과를 부정적으로 인식하려는 태도이다. 한국과 중국 ‘양국은 서로에게 이중적 잣대로 가름하려는 愛憎이 있다²⁶⁾’. 중국인들은 한국에 대해 양질의 대중 문화, 선진 정치문화, 민주화라는 긍정적 이미지와 동시에 한국을 ‘소국’으로 보는 부정적 이미지를 동시에 지니고 있다. 실제로 중국인들이 작성한 리뷰를 살펴보다보면, 종종 까오리뽕즈²⁷⁾라고 한국인을 지칭하며, 한국과 한국인을 비하하거나 무시하려는 경향이 있는 정도의 글은 어렵지 않게 찾을 수 있으나, 5·18광주민주화운동을 비롯한 다른 민주화운동에 대해 완벽하게 부정하는 태도를 보이는 리뷰는 매우 적다. 그 중, 대표적으로 5·18광주민주화운동에 대해 부정적인 평가를 내린 리뷰로는 ‘大密’의 짧은 리뷰가 있다. 그 내용을 살펴보면, “이러한 (민주화)운동은 분명히 두려움 없이 용감해 보이나, 군사정부의 통치아래 있는 국가에서 무장하여 폭동을 일으키게 되면 실패할 수밖에 없다. 명백한 사실이지만 사람들은 여전히 무서운 줄 모르고 사지로 향하는구나. 안타깝다. 정말로 안타깝다.”²⁸⁾라며 5·18광주민주화운동을 실패할 수밖에 없었던 운동이며, 5·

22) 只为韩国人这种敢于直面过去、反思历史的精神，也应为本片鼓掌……

<http://movie.mtime.com/52683/reviews/short/new-2.html>

23) 我只想着，中国的WG，或者南京大屠杀这样的历史，又有几人可以拍得出来。

<http://i.mtime.com/laolang/blog/851923/>

24) 不可能拍出来的,能看到书本里的记录就可以了.不要为了呼唤电影而让自己陷入麻烦中。

<http://i.mtime.com/laolang/blog/851923/>

25) 世界上各个民族都有灾难,就看你怎么看待,韩国人以历史为镜,我保证他们以后不会发生这种事,CHINA人把这些牺牲看成一种活该,所以总有一天他们会再次付出代价,到时候我也当孙子,当孙子好啊,不用死,跟条狗一样的活。

<https://tieba.baidu.com/p/240859350?pn=2>

26) 이인택, 「한중 교류 현황과 전망」, 『중국학』, 29집, 2007. pp.267-29.

27) 까오리뽕즈(高丽棒子)는 중국인이 한국인을 비하하며 지칭할 때 쓰는 단어이다.

28) 这样的运动显然非常无畏，在军政府统治的国家，搞武装暴动必然失败。显而易见的事实，可人们还是

18광주민중화운동에 참여한 이들을 '무서운 줄 모르고 사지로 향하는' 사람들로 평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 외에도, '국가가 올려퍼질 때의 살육 거기서 중국이 떠올랐다'²⁹⁾라며, 중국에 대해 매우 부정적인 평가를 내리는 리뷰나, "이 시기에 대해 잘 모르는 사람은 직접 찾아보세요. 아마 당신의 역사관이 바뀌게 될 거예요."³⁰⁾라고 이야기하며, 사회주의 중심의 중국적 가치관과 역사관을 변화하기 위해서는 한국의 5·18광주민중화운동에 대한 이해가 필요함을 언급하는 리뷰 등이 있다.

3. 영화 <화려한 휴가>에 대한 대만 관객의 수용

대만에서 가장 큰 웹사이트 중 하나인 痞客邦에 '華麗的假期'라는 키워드를 입력해보면, 총 14편의 영화 화려한 휴가에 대한 글이 검색된다.³¹⁾ 그 중, 2편은 영화 링크 및 위키백과에 나와 있는 영화의 소개를 그대로 옮겨놓은 글이고, 2편은 영화에 대한 신문 기사를 옮긴 글이다. 2편의 신문 기사 중 1편은 영화의 주인공인 이준기를 집중 조명한 기사였고, 다른 1편은 영화가 중국에서 상영금지조치를 당한 내용을 집중 조명한 기사였다. 이 4편의 글을 제외하고, 10편의 글은 모두 영화 <화려한휴가>에 대한 영화 리뷰였다. 또한 대만에서 화려한 휴가가 정식 상영되기 전까지, 화려한 휴가라는 제목은 한국어 그대로 華麗的休假라고 번역되어 불리었다. 따라서 華麗的休假라는 키워드를 통해 검색되는 영화와 관련된 글은 총 25편인데, 그 중에 영화 리뷰는 3편에 불과 한다. 이는 <화려한 휴가>의 개봉 이후 그 명칭을 <華麗的假期>로 사용하였기 때문으로 판단된다. '華麗的假期'로 검색되는 글은 대부분 영화 스틸컷이나 시사회의 사진, 예고편 등의 영상, 위키백과나 공식 웹사이트에 게재된 소개 글이다. 여기서 특이한 점은 痞客邦이 대만의 웹사이트임에도 불구하고, 영화<화려한 휴가>에 대한 일본판 예고편 혹은 일본판 영화 포스터에 대한 글들이 많은 비중을 차지한다는 점이다. 그리고 영화<화려한 휴가>의 일본 상영에 대한 기사 또한 많았다는 점이다. 우리는 이를 통해 일본에 대한 대만인들의 우호적 감정과 함께 일본에 대한 높은 관심도를 엿볼 수 있다.

痞客邦에 업로드 된 총 13편의 영화 리뷰를 살펴보면, 대만의 관객은 영화 <화려한 휴가>에 나타난 한국의 민주화 운동을 둘러싸고, 비교적 다양한 입장을 보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대만의 관객은 한국의 민주화 운동과 민주주의 그리고 5·18광주민중화운동에 대해 대체로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으며, 5·18광주민중화운동을 통해 대만의 비극적 역사인 2·28사건, 백색테러, 미려도사건 등을 투사하기도 한다. 그리고 대만 역시 5·18광주민중화운동이라는 다소 민감한 소재를 영화화 하였다는 사실에 한국의 영화계에 대해 긍정적인 평가를 내리

无畏地赴死，可惜，是在可惜。

<http://movie.mtime.com/52683/reviews/short/new.html>

29) 国歌中的杀戮 那点 要拿中国。

<http://movie.mtime.com/52683/reviews/short/new.html>

30) 不知道那段历史的可以回去查查，会颠覆你的历史观。

<http://movie.mtime.com/52683/reviews/short/new.html>

31) 영화 <화려한 휴가>에 대한 대만 관객의 리뷰는 2018년 11월 25일을 기준으로 한다.

면서, 대만 스스로 여전히 비극적 역사에 대해 제대로 영화화한 작품이 없음을 반성한다. 또한 한국과 한국인들이 갖고 있는 반미감정에 대한 대만 관객들의 관심을 엿 볼 수도 있다. 이 외에도 영화 속의 내용과 5·18광주민중화운동의 역사적 사실을 혼동함으로써 5·18 광주민중화운동에 대해 오해하기도 한다.

영화 <화려한 휴가>에 대한 대만인의 리뷰를 정리해 보면, 5·18광주민중화운동과 민주화운동에 대한 대만인의 관점은 크게 네 가지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첫 번째는 5·18광주민중화운동을 소재로 한 <화려한 휴가>를 통해 2·28사건, 백색테러, 미려도사건 등과 같은 대만의 비극적 역사를 환기하고, 대만의 비극적 역사에 대해 평가하는 태도이다. ‘馬賽克女郎’은 자신이 당시 TV를 통해 간접적으로 겪은 미려도사건과 5·18간의 공통점에 대해 “놀랍게도 독재자가 인민을 속이는 수단이 너무나도 비슷하다는 것을 발견했다. 두 사건은 사건의 궤적이 비슷하다. 모두 군대와 경찰의 꾀박에 대한 백성들의 반란이었으며, 독재자는 먼저 움직이려는 민주세력에게 ‘잠복해 있는 간첩’, ‘다른 속셈이 있는 불순분자’ 및 ‘도적’의 죄명을 씌워 민주주의를 요구하며 시위하는 인사들을 군대의 폭력으로 진압했다.”³²⁾라고 평가한다. 또한, 文學系는 “정부의 폭력이 역사적으로 수많은 사회적 참극을 만들었다. 대만에서는 직감적으로, (영화 <화려한 휴가>를 보면,) 228사건과 백색테러를 연상시킨다.”³³⁾라며 영화 <화려한 휴가>에 나타난 5·18광주민중화운동의 모습과 2·28사건 간에 존재하는 공통점에 대해 언급한다, 이에 반해 ‘心如石硯’는 “언론 매체는 이 사건을 대만의 2·28사건과 비교하는데, 느낌상 그다지 타당해가고 생각하지 않는다. …… 만약 정말로 비교를 해야 한다면, 중국의 6·4천안문사건이나 대만의 야생백합화운동³⁴⁾과 비슷하다. 이는 모두 학생들에 의해 발발한 정치 청명운동에 속하기 때문이다.”라고 한국의 5·18광주민중화운동과 대만의 2·28사건간의 차이점을 언급하며, 오히려 5·18광주민중화운동과 2·28사건간의 공통점보다 한국의 5·18광주민중화운동과 중국의 6·4천안문사건간의 공통점, 혹은 한국의 5·18광주민중화운동과 대만의 야생백합화운동 간의 공통점이 많음을 지적한다. 뿐만 아니라, ‘marspandora’는 평범한 시민들에 대한 국가폭력의 행사라는 관점에서 “군대 혹은 정부가 국민에 대한 무자비한 살육은, 모든 나라가 피할 수 없는 역사 이야기인 것 같다.”³⁵⁾라고 언급한다. 이 같은 지적은 한국과 대만뿐만 아니라, 중국의 6·4천안문사건, 아우슈비츠 수용소의 유대인 대량

32) 赫然發現獨裁者構陷人民的手段那麼雷同，事件的軌跡又是那麼相似，都是軍警鎮壓下的官逼民反，獨裁者事先給蠢蠢欲動的民主勢力安上「間諜潛伏」、「別有居心的野心份子」及「暴徒」的罪名，再對示威要求民主的人士進行鐵蹄鎮壓。

<http://lindyeh.pixnet.net/blog/post/23840397>

33) 政府的暴力，造就了歷史上諸多的社會慘案；在台灣，很直覺的便會聯想到228事件與白色恐怖。

<http://stu06103.pixnet.net/blog/post/360292352>

34) 야생백합화운동은 1990년 3월 16일부터 3월 22일까지 진행된 대만 최초의 대규모 학생운동으로, 당시 대학생들은 중정기념당 광장에 모여 ‘국민대회해산’, ‘임시조항폐지’, ‘국시회의개최’ 및 ‘정경개혁의 시간표 제시’ 등 4대 요구사항을 제기하였다. 이 학생운동 이후 당시 총통이었던 리덩후이는 학생들과의 약속에 따라 국시회의를 개최하였으며, 1991년 <동원감란시기임시조관>을 철폐해 본토수복노선을 포기하고 국민대회를 해산하였다. 야생백합화운동은 대만의 민주정치에 상당한 영향을 미쳤으며, 이를 통해 대만의 민주화는 새로운 단계에 접어들게 되었다.

35) 軍隊或政府對人民無情的殺戮，好像是每個國家都不能逃過的歷史情節。

<http://marspandora.pixnet.net/blog/post/18032317>

학살, 미얀마 정부의 반정부 시위대 강제 진압 등 정당성이 없는 국가의 억압적 조치나 행위가 동서고금을 불문하고 진행되고 있음을 뒷받침 한다.

두 번째는 민주화에 대한 자신의 이해를 나타내는 태도이다. 영화 <화려한 휴가>는 대만의 관객에게 민주화에 대해 다시 한 번 생각해 보는 계기를 마련하였다. '文學系'는 영화 리뷰를 통해 민주적 국가에서 국민의 역량에 대해 고민한다. 그는 "영화에서 퇴역 군대 장교가 '총과 대포보다 더 강한 것은 국민이다.'라고 말했다. 그리고 영화 <V 怪客>에서는 '국민이 정부를 두려워하면 안 된다. 정부가 국민을 두려워해야한다'고 말했다."³⁶⁾라고 지적하며, 영화 <화려한 휴가>의 대사인 '총과 대포보다 더 강한 것은 국민이다'와 <브이 포 벤데타>의 대사인 '국민이 정부를 두려워하면 안 된다. 정부가 국민을 두려워해야한다'를 연결하여 민주적인 나라에서 정부와 국민간의 관계와 국민의 역할에 대해 고민한다. 이와는 또 다른 관점에서, 'marspandora'는 "나처럼 간이 콩알만큼 작은 사람이 만약 독재 정치 하에서 하루 종일 억압 받고 걸핏하면 좌편향 인사로 의심 받는 시대에 살아간다면, 진압을 행사하는 군인들 앞에 용감하게 나서서 '나는 자유를 원한다'라고 외칠 수 있는 용기가 있는가에 대해 감히 상상조차 할 수 없었다."³⁷⁾라고 고백한다. 사실 그가 고민하였던 문제는 민주화 운동이 일어나던 그 시대를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 역시 함께 고민했던 문제였다. 민주화 운동의 시작은 '아무런 대가없이 얻어질 수 없는 민주주의를 위해 자신의 목숨을 걸 것인가 말 것인가' 라는 질문으로부터 시작되었기 때문이다.

세 번째는 한국의 5·18광주민주화운동 당시 미국의 묵인에 대한 비판과 그에 따른 반미기조를 나타내는 태도 및 대만의 미려도사건 당시 대만에 만연했던 반미기조에 대한 동의하는 태도이다. 'Alger530'은 "이 사건에서 우리가 알 수 있었던 것은 한국인들이 반미감정을 갖게 된 원인이다. 이 사건이 이토록 커지게 된 데에는 (한국정부의 폭력에 대한) 미국의 묵인이 크게 작용하였다."³⁸⁾ 라고 지적하며, 미국이 5·18 광주민주화운동을 유혈진압한 군부의 행동을 묵인하였고, 이 같은 미국의 태도는 사실상 전두환 군사정권에 힘을 실어준 행위였다고 평가한다. 실제로 이 같은 이유로 인해 미국에 실망한 한국의 운동권과 지식층 중 일부는 반미주의로 돌아서게 되며, 이후 한국에서는 반미정서가 널리 퍼지게 된다. 사실 이 시기 미국 정부가 미국의 이익을 위해 독재를 묵인했다가 해당 국가의 반미기조를 키운 사례는 한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많은 국가에서 나타난 현상이었다. 실제로 많은 국가들에서 반독재 운동가들은 자유민주주의의 선봉장을 자처하는 미국이 자신들을 도와주기를 기대했다가, 오히려 그런 독재정권을 뒤에서 지원하거나 묵인, 거래를 하는 모습을 보고 실망해 미국에 반대되는 길로 돌아선 사람들이 많다. 상술한 한국의 상황과는 반대로, 당시 대만에서는 미국이

36) 誠如片中退休軍官所言：「比槍砲更強大的，是人民。」又如電影《V怪客》所言：「人民不應該要害怕政府，政府才應該要害怕人民。」。

<http://stu06103.pixnet.net/blog/post/360292352>

37) 始終無法想像，膽小如鼠的我，若是猶活在一個專制、終日被鎮壓、動輒被懷疑是思想左傾份子的時代，我是否有勇氣挺身而出，在冷酷的鎮暴隊伍面前高喊：「我要自由！」。

<http://marspandora.pixnet.net/blog/post/18032317>

38) 從這個事件，我們也可以了解韓國人為什麼反美，這個事情會如此發展，有很大一個原因就是美國的默許。

<http://alger530.pixnet.net/blog/post/28020544>

폭도를 지원하였다고 여겨지면서, 반미감정이 생성되게 된다. ‘馬賽克女郎’은 영화 리뷰를 통해 자신이 어렸을 때 겪은 미려도사건 당시의 분위기를 서술함으로써, 미려도사건에 대한 기억의 재구성을 시도한다. 그는 리뷰를 통해 “우리 선생님은 미국이 우리와 중국이 통일되는 것을 두려워한다고 말씀하셨다. 대만과 중국이 통일하게 되면 세계 초강대국이 될 것이며, 미국은 곧 처음으로 위협을 느끼게 될 것이라 하셨다. 그래서 미국이 폭도들을 비밀리에 지원하고 있다고 하셨다.”³⁹⁾라고 서술한다. 세계 경찰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미국의 의지가 실제로 어떠한가를 차치하고서라도, 비교적 약소국에 위치하는 대만과 한국의 입장에서 볼 때, 미국이 어떠한 입장을 취하는가는 국가의 운명을 좌우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그리고 국가의 운명에 따라 그 운명이 결정되는 평범한 시민들은 자신의 이익에 따라 반미감정을 갖게 된 것이라 할 수 있다.

네 번째는 영화적 서술과 역사적 사실에 대한 불명확한 이해와 5·18광주민주화운동에 대한 오해이다. ‘옥혜♡진호’는 “결과적으로 모두 군인에 의해 전멸되었고, 여주인공만 남게 되었다.ㅠㅠ 하긴, 모두 전멸되지 않았더라면, 광주 학살이 어떻게 이토록 오랫동안 은폐될 수 있었겠는가~ 단지 몇 명의 생존자 증언에만 의존해야 한다면, 몇이나 되는 사람이 믿겠는가?”⁴⁰⁾라고 서술한다. 사실 희생자와 피해자에 대한 정확한 통계가 이루어지지 못한 상태이긴 하나, 위의 리뷰의 내용처럼 광주의 모든 시민이 ‘전멸’된 것은 아니다. 실제로 5·18광주민주화운동을 통해 많은 수의 사상자와 피해자가 발생하였지만, 영화에서는 극적효과를 높이기 위해 마지막에 남주인공은 모두 희생당하고 여자 주인공인 이요원(박신애 역)이 살아남은 것으로 묘사한 것이다. 이처럼 역사적 사실에 대해 잘 알지 못하는 경우는 영화와 같은 매체의 묘사를 실제 역사적 사실로 오해하는 경우가 종종 있다. 때문에, 역사적 사실에 대해 영화를 시도할 때에는 그 사실관계에 대해 더욱 명확하게 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 이와는 정반대로, ‘Naiyuan’은 “서로 자기가 옳다고 하지 않는 전쟁이 어디 있을까? 영화의 단순화는 단지 한쪽 가치관만으로, 그 입장에 서지 못한 관중을 선동할 뿐이다.”⁴¹⁾라며, 영화 속에서 묘사된 5·18광주민주화운동이 단지 한쪽의 입장, 즉 시민군의 입장만을 고려한 것이라 폄하하기도 한다. 사실, 일반적 상식화 되어버린 ‘역사는 승자의 기록이다’라는 생각으로 인해, 5·18광주민주화운동에 대한 진정한 고민 없이 ‘영화는 영화일 뿐이다’라고 치부해 버리는 입장 역시 우리가 경계해야 할 자세라 생각된다. 또한 여전히 만연한 이러한 생각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역사적 사건을 영화화하기 전, 더욱 치밀하게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정확한 고증을 통해 역사가 재현되어야 할 것이다.

39) 我們老師告訴我們，美國怕我們和中國統一，臺灣和中國一旦統一之後，就會成為世界超級強國，美國將第一個遭到威脅。而這些暴徒，正是美國暗中支持的。

<http://lindyeh.pixnet.net/blog/post/23840397>

40) 結局是全軍覆沒，只剩下女主角ㅠㅠ。也對，不是全軍覆沒的話，光州屠殺怎麼可以掩蓋那麼久~只憑幾個生存者的證詞，多少人信服？

<http://anokye.pixnet.net/blog/post/133281612>

41) 一齣戰爭不是公說公有理、婆說婆有理？電影的簡化只是用一面倒價值觀，煽動沒有身臨其境的觀眾。

<http://naiyuan.pixnet.net/blog/post/22939323>

4. 영화 <화려한 휴가>에 대한 한국 관객의 수용

한국의 최대 포털사이트인 NAVER의 '영화' 플랫폼을 살펴보면, 총 4343건의 리뷰가 검색⁴²⁾된다. 단순히 그 수만 따져볼 때, 중국의 76건, 대만의 13건과 비교해보면 한국의 리뷰 수가 월등히 많음을 알 수 있다. 이 같은 <화려한 휴가>에 대한 한국의 많은 리뷰는 한국의 관객들이 중국과 대만의 관객에 비해 다양한 각도에서 영화에 대한 평론을 내놓았을 것이라는 추측을 가능하게 한다. 영화 <화려한 휴가>에 대한 한국 관객의 리뷰를 정리해 보면, 5·18 광주민주화 운동과 민주화 운동, 그리고 영화에 대한 한국인의 관점은 크게 다섯 가지로 나누어 볼 수 있다.

한국 관객의 리뷰 내용 중, 중국과 대만의 리뷰와 가장 큰 차이를 보이는 점은 한국의 리뷰는 중국과 대만의 리뷰에 비해 정치적 성향에 따라 영화에 대한 평점 및 평가가 극력하게 대비되는 현상을 보인다는 점이다. 이 같은 현상은 영화에 대한 네티즌 평점⁴³⁾에도 잘 나타난다. 영화 <화려한 휴가>에 대한 네티즌 평점은 평균 7.48⁴⁴⁾로, 영화에 평점을 준 25165명의 네티즌 중, 영화 <화려한 휴가>에 1점을 준 네티즌은 전체의 21%이고, 10점을 준 네티즌은 전체의 58%로 나타난다.⁴⁵⁾ 하나의 영화에 대한 이 같은 극단적인 평가의 차이는 여러 이유에서 기인한다. 첫 번째는 영화 자체의 내부적 요소에 의한 경우이다. 즉, 영화의 주제, 스토리, 장르, 배우 및 영화의 완성도 등에 대한 관객 개인의 호감 정도에 따라 영화에 대한 평가가 달라질 수 있다는 것이다. 두 번째는 영화 외부의 요소에 의한 경우이다. 이는 역사, 정치, 사회적 이슈 등을 소재로 한 영화들의 평가에 종종 나타나는 것으로, 영화 <화려한 휴가> 역시 지역적, 정치적, 역사적 관점의 차이로 인해 평점의 격차가 크게 나타나는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1점과 10점을 준 리뷰의 구체적 내용을 살펴보면, 평점의 차이가 '5·18광주민주화 운동'에 대한 평가와 인식의 차이에서 기원하는 것임을 쉽게 알 수 있다. 그렇다면, 이 같은 극단적인 평가와 인식의 차이는 어디에서 온 것일까? 영화 <화려한 휴가>를 살펴보면, 5·18에 대한 평가와 인식의 차이가 '지역감정'을 기반으로 한 '정치적 견해의 차이'에서 기원하는 것임을 쉽게 알 수 있다. 즉, 정치적 견해의 차이에서 출발한 5·18이라는 역사적 사건에 대한 인식과 평가의 차이가 영화 <화려한 휴가>에 대한 극단적 평가의 차이로 이어진다는 것이다. 이로 인해, 영화 <화려한 휴가>에 대한 한국 관객들의 수용방식은 보다 복잡한 양상을 보이게 된다.

첫 번째는 5·18에 대한 부정적 평가와 인식을 바탕으로 한 편협과 왜곡이다. 주지하듯, 5·18 민주화 운동은 1995년 '5·18민주화운동 등에 관한 특별법'에 의해 명예가 회복되었으며, 5·18

42) 영화 <화려한 휴가>에 대한 한국 관객의 리뷰는 2018년 11월 25일을 기준으로 한다.

43) <https://movie.naver.com/movie/bi/mi/point.nhn?code=58018#pointAfterTab>

44) 2018년 11월25일을 기준으로 한다.

45) 영화 <화려한 휴가>에 2점, 3점, 4점을 준 네티즌은 각각 1%였으며, 5점, 6점을 준 네티즌 역시 2%이다. 3%의 네티즌이 본 영화에 대해 7점을 주었으며, 5%의 네티즌이 8점, 6%의 네티즌이 9점을 주었다.

은 ‘민주주의 운동’으로 규정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5·18에 대한 폄훼와 왜곡은 여전히 진행되고 있으며, 이 같은 5·18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은 영화 <화려한 휴가>의 리뷰에서도 쉽게 찾아볼 수 있다. ‘wish****’는 5·18을 “북괴 공작원 6백 명으로 조직된 특수부대가 일으킨 대남공작 사건”⁴⁶⁾이라 주장한다. 그리고 ‘worx****’는 여전히 5·18광주민주화운동을 ‘광주사태’라 칭하며, 5·18에 대해 “정권을 잡은 전라도 세력이 MBC와 온갖 매체를 동원해 광주사태를 미화하고 MBC 제 5공화국을 통해 젊은 세대에게 잘못된 역사관을 심어주려 노력했지만 법원은 역사 왜곡과 허위사실 부분에 대해 유죄를 선고하는 철퇴를 가했다”⁴⁷⁾라고 인식한다. 또한, ‘tks9****’은 계엄군에 대한 시민들의 항거에 대해서 “어떠한 경우라도 폭력은 용서되어서는 안 되는데, 광주의 폭력은 민주화운동으로 미화되고 그들의 살인, 방화, 약탈 등의 폭력은 용인되다 못해 미화되고 있다. 이 나라 국민임이 부끄러워지는 대목이기도 하다.”⁴⁸⁾라며 오히려 시민들의 항거에 대해 부정적으로 평가하기도 한다. 이 같은 5·18에 대한 폄훼와 왜곡의 시각을 지닌 리뷰들에 대해 적지 않은 관객들은 5·18에 대한 폄훼와 왜곡이 ‘지역감정’을 기반으로 한 ‘정치적 견해’의 차이에서 기인한다고 보며, 그들의 5·18에 대한 폄훼와 왜곡이 잘못된 것임을 지적한다. ‘runn****’은 “집에 와서 평점을 보니 극과 극이더군요. 10점 아니면 1점... 저도 경상도와 전라도의 그 사건에 대한 시각차를 알고는 있었지만 이정도 일 줄은 전혀 몰랐습니다. 토종 서울 사람으로서 어떻게 보면 흥미롭다고도 생각했던 그들의 관계가 이처럼 가슴 아프고 안타까운 것인지를 오늘에서야 알게 되었습니다.”⁴⁹⁾라고 지적한다. 또한 ‘ywy****’ 역시 상당수의 영화 리뷰에 지역감정 혹은 지역 차별적 내용이 있음을 지적하며, “5·18 민주화 운동은 광주시민의 역사가 아닙니다.. 모든 한국인의 역사입니다.. 역사 앞에서 조차 지역 차별, 감정을 이야기하고 만들어 가버린다면.. 지금 우리가 가장 부끄러운 역사를 만들어가는 세대로 기록 될 것입니다.”⁵⁰⁾ 라고 호소하며, 지역적·정치적 관점에서 벗어나 역사적 진실을 직시해야 함을 말한다.

두 번째로는, 5·18의 역사적 의의에 대한 긍정 및 광주 시민의 시민의식에 대한 긍정적 인식이다. 상술하다시피, 5·18에 대한 부정적 평가가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대다수의 영화 리뷰는 5·18의 역사적 의의를 긍정하고, 민주주의 및 광주 시민의 시민의식에 대한 긍정을 표하고 있다. ‘lack****’는 “우리가 지금 이렇게 살고 있는 것은 그 당시 광주시민들의 피와 죽음이 어린 희생. 그 희생이 있었기에 우리나라가 민주주의국가로 된 것에 도움이 되었다고 생각이 듭니다.”⁵¹⁾라고 서술하며, 5·18민주화운동이 현재 대한민국의 민주주의에 미친 긍정적인 영향에 대해 평가한다. 그리고 ‘korp****’는 “예전에 어느 책에서 읽은 말인데 ‘민주라는 나무는 피를 먹고 자란다’가 기억나는군요. 개인적으로 생각하건데...80년 518의 시민군이나, 수없이 죽어간 대학가 운동권 학생들, 노동자들, 재야인사들 등등 그분들은 이 땅에 민주주의와 자유를 갈망했었기에...하늘에서나마 지금 한국을 보며 나름의 보람을 느끼시지 않을까 생

46) <https://movie.naver.com/movie/point/af/list.nhn?st=nickname&sword=14418611&target=after>

47) <https://movie.naver.com/movie/bi/mi/reviewread.nhn?nid=856201&code=58018&order=#tab>

48) <https://movie.naver.com/movie/bi/mi/reviewread.nhn?nid=893024&code=58018&order=#tab>

49) <https://movie.naver.com/movie/bi/mi/reviewread.nhn?nid=889990&code=58018&order=#tab>

50) <https://movie.naver.com/movie/bi/mi/reviewread.nhn?nid=782521&code=58018&order=#tab>

51) <https://movie.naver.com/movie/bi/mi/reviewread.nhn?nid=891503&code=58018&order=#tab>

각합니다.”⁵²⁾라고 서술하며, 지금의 민주주의가 시민군, 학생들, 노동자들, 재야인사 등 여러 사람들의 희생을 통해 성취한 것임을 상기한다. 뿐만 아니라 몇몇 관객은 당시 5·18이 시민들에 의해 이루어진 민주화 항쟁임을 상기하며, 광주 시민들이 항쟁에 참여하게 된 이유에 대해 각자의 논리를 펼친다. ‘jimm****’은 “친구와 가족의 부당한 죽음을 눈앞에서 목격한 사람이라면 그 누구라도 그저 주저앉아 있을 수만은 없다는 걸 알 만큼 당연한 도리였기에, 얼마 안 있어 다가올 커다란 위협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스스로 일어난 것이다. 인간으로서 절대 용서할 수 없는 일이고, 인간으로서 절대로 지켜야 할 것이 있었기에.”⁵³⁾라 지적하며 광주 시민들이 항쟁에 참여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를 ‘인간적 도리’에서 찾았으며, ‘mizu****’는 “그들이 폭도가 아니었던 건 선량한 시민이기에 앞서, ‘죽음을 넘어 시대의 어둠을 넘어’ 부정의에 대해 맞서는 정의라는 다짐과 독재에 맞서 싸우는 시대적 신념을 가슴에 품고 있었기 때문이다.”⁵⁴⁾라고 지적하며, 광주 시민들이 ‘인간적 도리’를 넘어 ‘시대적 신념’을 위해 투쟁하였음을 주장한다. 또한 ‘clea****’는 광주 시민이 투쟁하게 된 이유뿐만 아니라, 그들이 실제로 보여준 행동에서 광주시민들의 시민의식에 대해 “광주가 위대했던 것은 단순히 군부독재의 만행에 대한 저항 때문만은 아니었다. 대도시에서 잃어가고 있던 공동체의 따스함, 약자가 좌절 앞에서 서로를 향해 폭력을 들이대지 않고 뭉쳐 스스로를 지키려 한 그 성숙함, 극한적 상황에서 도피하지 않고 끝까지 가는 용기, 악에 맞서 싸우려는 의지 등등, 이것은 정녕 광주만이 아닌 한국인 모두의 자부심이다.”⁵⁵⁾라고 평가하며, 5·18항쟁 기간 동안 보여준 평범했던 광주시민들의 시민의식을 긍정하기도 한다.

세 번째는 5·18에 대한 자신의 무관심을 반성하고 5·18에 대한 기억을 다짐하는 태도이다. 영화 리뷰를 살펴보면, 특히 80년대 이후 세대의 관객들이 그동안 5·18에 무관심하고 무지했음을 직접적으로 토로하는 것을 알 수 있다. ‘powe****’은 “깡촌 시골학교에서 좋은 대학을 가기 위해 나름 열심히 공부했다..선생님이 외우라는 것은 열심히 외웠고 필요 없다는 것은 한 자도 읽지 않았다. 하지만 내가 아기일 때 이 나라에서 수 백 명이 죽거나 실종되고 다쳤다는 역사는 말하지 않더라. 폭동인지 투쟁인지 내가 판단할 일인데 나이는 국사선생님은 알 필요조차 없다고 느끼셨나 보다.”⁵⁶⁾라고 회고하며, 5·18이 발생한 80년 이후 오랜 기간 동안 초중고 정규과정 속에서 5·18을 제대로 접할 수 없었다는 사실을 서술한다. 이처럼 5·18 이후의 세대에게 있어서 5·18은 그동안 제대로 배울 기회조차 없던 사건에 불과했으며, 매년 5월마다 뉴스에서 접할 수 있는 정도의 것이었다. ‘yuri****’는 “해마다 5월이 되어 기념일이 와서 뉴스 속 오염하는 그들을 봐도 저는 아무렇지도 않았습니다. 그들이 평생 지니고 사는 ‘살아남은 아픔’은 내게 무관했습니다.”⁵⁷⁾라고 고백한다. 이처럼 5·18에 대해 이성적으로 감성적으로 고민해보지 않은 세대들에게 있어 5·18은 무관심의 대상일 수밖에 없었던 것이다. 이 같은 5·18 이후의 세대에게 영화 <화려한 휴가>는 5·18을 시각화함으로써 인지하도록 만들

52) <https://movie.naver.com/movie/bi/mi/reviewread.nhn?nid=830156&code=58018&order=#tab>

53) <https://movie.naver.com/movie/bi/mi/reviewread.nhn?nid=864306&code=58018&order=#tab>

54) <https://movie.naver.com/movie/bi/mi/reviewread.nhn?nid=1170822&code=58018&order=#tab>

55) <https://movie.naver.com/movie/bi/mi/reviewread.nhn?nid=865584&code=58018&order=#tab>

56) <https://movie.naver.com/movie/bi/mi/reviewread.nhn?nid=786745&code=58018&order=#tab>

57) <https://movie.naver.com/movie/bi/mi/reviewread.nhn?nid=894841&code=58018&order=#tab>

있고, 5·18 당시 광주 시민들과의 정서적 교감을 형성하도록 만든다. 특히, 영화를 통해 광주 시민들의 치참한 죽음을 목도한 관객들은 ‘남은자의 부끄러움’을 느끼고, ‘무지함의 반성’을 하게 된다. ‘살아남은 아픔’이 자신과 무관했다고 고백한 ‘yuri****’는 “이제야, 이제야 그날을 압니다. 죄송합니다. 미안해요. 영화를 보고 돌아오는 길 “살아남은 아픔”에 스물다섯 다 큰 남자가 길거리를 걸으며 울었습니다.”⁵⁸⁾라고 고백하며, 그동안의 무관심에 대한 반성의 태도를 보인다. 뿐만 아니라, 관객들은 무관심의 반성을 넘어, 5·18에 대한 기억의 필요성을 인지하고, 스스로 5·18을 기억하고자 하는 다짐을 하는 태도를 보이는 관객 역시 적지 않다. ‘sch1****’는 “영화 속의 그들이 잊지 말고 기억해야한다고 말하는 것처럼... 우리도... 그들의 피를 기억했으면 하는 생각이 들었다.”⁵⁹⁾라 고백하며, 민주주의를 위해 희생한 광주시민들을 기억해야 함을 지적한다. 그리고 광주 출신의 아버지 밑에서 태어난 ‘hjki****’는 “아버지에게 맺혀있는, 아니 국민 모두에게 맺혀 있는 피의 역사를, 이 숭고한 투쟁을 결코 잊어서는 안 되겠다고 다짐했습니다.”⁶⁰⁾라고 서술한다. 그리고 이제는 5·18이 광주 시민들만이 기억하는 광주만의 역사가 아닌 대한민국 전체가 기억해야 할 역사적 사실임을 지적하며 “영화 속에서 박신애가 가두방송을 돌며 외치는 한 마디... ‘광주 시민 여러분..저희를 기억해주십시오.....’ 그 당시에는 군부 정권의 탄압으로, 광주에게만 말할 수밖에 없었던 절규...그러나 오늘날에는 이 대사가 ‘국민 여러분..저희를 기억해주십시오.’로 바뀌어갑니다.”⁶¹⁾라는 기대를 보인다.

네 번째는 계엄군에 대한 동정을 표하거나 혹은 계엄군의 입장에 대한 이해를 시도하려는 태도이다. 한국은 남과 북의 분단으로 인하여 징집제를 실시하고 있으며,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 대부분의 한국 남성은 국방의 의무를 져야한다. 그리고 군인이 속하게 되는 군대라는 특수한 사회는 상명하복식의 수직적 명령체제로 움직이고 있으며, 이 같은 사실은 대부분의 국민들이 모두 인지하고 있다. 따라서 영화를 감상한 한국 관객 중, 적지 않은 관객은 폭력을 자행한 자의 신분이 ‘군인’이라는 점을 지적하며, 군인이라는 특수한 신분으로 5·18을 겪어야만 했던 계엄군에 대해 안타까움을 느낀다. 그 중, ‘stea****’는 “일반 군인들이 무슨 죄입니까, 영화 첫 부분에 보면 이들도 어디로 가는지 모르고 그저 명령에 의해 남쪽으로 내려간 것 아닙니까.”⁶²⁾라고 지적하며, 수직적 명령체계 속에서 자신의 의지와 상관없이 광주로 가게 된 군인들에 대해 안타까움을 표함과 동시에 영화 속의 악의축이 군부세력이 아닌 일반 군인들로 비춰진다는 사실을 아쉬워한다. 그리고 ‘mira****’는 “투입된 군인들도 대학생이었던 이들과 다를 바 없는 평범한 청년들.. 군인이 아니었다면 광주사태에 함께 분노했을지도 모를 이들인데 일반 시민을 총으로 쏘고, 자신들이 죽기도 했다. 시민을 쏘아했던 많은 군인들이 아직까지도 그 상처를 잊지 못하고 있다.”⁶³⁾라고 하며, 당시 투입된 군인들을 5·18의 가해자이자 피해자로 보고, 그들이 겪는 트라우마에 대해 언급한다. 이와 같은 관점에서 ‘hjki****’ 역시 5·18 당시 계엄군이 겪는 트라우마를 지적하며, “다시 생각해보니 저 군인들도 얼마나

58) <https://movie.naver.com/movie/bi/mi/reviewread.nhn?nid=894841&code=58018&order=#tab>

59) <https://movie.naver.com/movie/bi/mi/reviewread.nhn?nid=852631&code=58018&order=#tab>

60) <https://movie.naver.com/movie/bi/mi/reviewread.nhn?nid=901408&code=58018&order=#tab>

61) <https://movie.naver.com/movie/bi/mi/reviewread.nhn?nid=901408&code=58018&order=#tab>

62) <https://movie.naver.com/movie/bi/mi/reviewread.nhn?nid=899323&code=58018&order=#tab>

63) <https://movie.naver.com/movie/bi/mi/reviewread.nhn?nid=894825&code=58018&order=#tab>

고통스러웠을까요. 이 영화, 이창동 감독의 '박하사탕'과 같이 봐야한다고 생각합니다.”⁶⁴⁾라 언급한다.⁶⁵⁾ 이 외에도 'hodo*****'는 당시 계엄군의 잔인한 행동이 이루어질 수 있었던 이유를 '인간의 본성'이라는 관점에서 해석하며, “군인들이 그렇게 쉽게 사람들을 때리고 죽일 수 있었던 것도, 상부의 명령이기에 어쩔 수 없다는 책임회피적인 안도감과 자신의 행동이 국가를 구한다는 잘못된 확신 때문이었으리라. 그것이 옳은가 그릇된 것인가는 상관없다. 나만이 지금의 역할에서 만족을 얻으면 그 뿐인 것을.. 이것이 인간의 본성인 것이다.”⁶⁶⁾라 지적한다. 즉, 당시 계엄군의 행동이 도의적 판단과는 별개로 이루어진 것이며, '군인'이라는 신분적 특성으로 인해 자행된 것이라 주장하는 것이다.

이처럼 어느 정도 관점과 인식의 정도 차이가 있지만, 한국의 관객들은 당시 계엄군에 대해 동정을 나타내고 있으며, 심지어 계엄군에 대한 이해를 시도하는 모습을 보인다. 특히, 영화 <화려한 휴가>는 당시 군의 내부적 문제와 사회의 구조적 배경의 고찰이 생략되었기에 필연적으로 군인들의 잔혹성만을 부각하였고, 이로 인해 군인들이 폭력적으로 내몰린 근본적 원인은 제대로 설명하지 않는다. 따라서 한국 관객은 '왜 군인들이 시민들을 폭력으로 진압한 것일까?'라는 의문을 갖게 되었고, 그 이유를 찾는 과정 속에서 80년 신군부로 대표되는 사회적 상황과 한국 군대의 수직적 명령체계로 대표되는 경직된 군대문화를 떠올리게 된 것이며, 그러한 사회·문화적 상황 속에서 자신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상부의 명령에 따라 움직여야만 했을 군인에 대한 안타까움을 느끼게 된 것이라 할 수 있다.

다섯 번째는 기억의 매개체로서 영화에 대한 평가이다. 5·18 당시 신군부 세력은 광주 진상을 의도적으로 왜곡 및 은폐시켰고, 39년이 지난 현재까지 5·18의 진실과 그에 대한 기억을 조작하고 망각시키려는 시도는 끊임없이 이루어져왔다. 이에 대해 'jife*****'는 “아직 많은 이들이 5·18 광주민중항쟁 등 우리 역사를 모르고 알고도 하지 않는다. 국민을 앵무새화 하려는 보이지 않는 세력 때문에 우리는 지난 과거를 차츰 잊게 된다.”⁶⁷⁾라고 지적한다. 이러한 사회적 상황 속에서, 5·18에 대해 왜곡된 정보를 받아들인 사람 혹은 5·18을 경험하지 못한 세대는 5·18을 기억해야 할 필요성 자체를 느끼지 못했고, 5·18을 직접 경험한 그 세대의 광주 시민들은 정신적·육체적 트라우마로 인해 망각에 대한 공포와 동시에 기억에 대한 고통을 느껴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5·18을 이야기하고, 재현하고, 드러냄으로써 5·18에 대한 기억을 공유하고자 하는 노력은 끊임없이 지속되어왔다. 그 중 대표적인 노력이 바로 영화를 통한 재현이다. 대중성을 지님과 동시에 시각적 향유가 가능하다는 영화의 장르적 특성으로 인해, 영화는 5·18 이후 지금까지 대표적인 기억의 보존 장치로서의 역할을 담당해왔다. 1987년 <칸트씨의 발표회>를 시작으로 하여, 90년대 <꽃잎>, <박하사탕>, 2000년대 <오래된 정원>, <화려한 휴가>를 거쳐 최근 <택시운전사>에 이르기까지 5·18은 꾸준히 영화를 통해 재현되어왔다. 그 중, <화려한 휴가>는 1980년 5월의 광주를 시공간적 배경으로 하여 당시 광주 시민들의

64) <https://movie.naver.com/movie/bi/mi/reviewread.nhn?nid=901408&code=58018&order=#tab>

65) 영화 <박하사탕>은 5·18 당시 광주에 투입된 계엄군이었던 주인공의 5·18 이후의 삶을 그린 영화로, 죄의식과 죄책감으로 파멸되어가는 한 남자의 이야기를 다룬다.

66) <https://movie.naver.com/movie/bi/mi/reviewread.nhn?nid=2166843&code=58018&order=#tab>

67) <https://movie.naver.com/movie/bi/mi/reviewread.nhn?nid=790903&code=58018&order=#tab>

항쟁과 그린 영화로, 5·18 이후 세대에게 5·18의 참상을 직접적으로 보여준 대표적인 영화라 할 수 있다. 영화는 5·18이전 광주시민들의 일상과 5·18 발생 이후 처참한 죽음을 통해, 항쟁에 참여한 사람들이 평범한 시민들이었으며 그들의 목숨을 건 항쟁으로 인해 현재의 민주주의가 쟁취되었음을 보여준다. 이에 대해 ‘hiki****’는 “정말 구체적인 것은 알지 못하나 이 영화를 통해서도 이 피의 역사를 알게 된 사람이 많아질 것 같습니다.”⁶⁸⁾라고 언급하며, 영화를 통해 많은 사람들이 광주시민들의 숭고한 투쟁을 알게 될 것이라 추측한다. 또한 ‘tese****’는 “제가 직접 겪어보지는 않았지만 다시는 이런 일이 이 땅에서 벌어지지 않도록 바라면서 그나마 이런 영화를 계기로 민주화를 위해 또는 조국을 위해 몸 바쳐 투쟁하신 분들을 기억할 수 있어서 다행입니다.”⁶⁹⁾라고 하며 스스로 영화를 통해 광주 시민을 기억할 수 있음에 안도한다. 뿐만 아니라, ‘upit****’는 지금의 젊은 세대들이 글보다 영상에 익숙하다는 점을 지적하며 “영화라는 영상매체와 인기 있는 영화배우를 통해서, 비록 그것이 ‘수단’이라 할지라도, 우리의 다음 세대들에게 1980년 5월 18일 광주에서 일어났던 일들을 한번쯤, 아니 영화를 보는 동안만이라도, 아니, 영화소개프로그램을 보는 그 순간만이라도 기억하게, 생각하게 만들 수만 있다면 그것으로 이 영화의 목적은 달성된 것이 아닌가 합니다.”⁷⁰⁾라고 언급한다. 또한, 이처럼 수단으로써 영화를 활용할 지라도 광주의 기억을 다음 세대에게 전해야만 비극적 역사가 반복되지 않을 것임을 지적한다.

한편, 5·18의 영화화한 <화려한 휴가>에 대해 일부 관객들은 ‘프로파간다용 영화’⁷¹⁾ 혹은 ‘정치공작영화’⁷²⁾등으로 규정하며 영화가 대중을 선동하고 사실을 왜곡하고 있다고 지적한다. 그러나 이 같은 주장이 담긴 리뷰들의 내용을 살펴보면, 대부분 5·18에 대한 왜곡과 거짓을 바탕으로 작성되었으며, 의도적으로 영화를 평가절하 함으로써 현재까지 밝혀진 5·18에 대한 역사적 진실을 폄하하려는 시도를 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5. 결론

지금까지 본 연구는 수용자비평론적 관점과 관객수용이론의 관점으로 한국, 중국, 대만에 서의 <화려한 휴가> 수용에 대해 고찰하였다. 구체적으로, 본 연구는 영화 <화려한 휴가>를 민주주의와 민주화운동에 대한 기억을 보존·전승하고 재현·확산 시키는 영상 텍스트로 보고, 한국, 중국, 대만의 관객을 영상텍스트의 의미코드를 이해하고 자신의 경험지평을 토대로 영화를 해석하는 ‘능동적 수용자’로 인식함으로써, 한국, 중국, 대만의 관객이 영화 <화려한 휴가>를 어떠한 방식으로 해독하고, 어떠한 사회·문화적, 개인적 의미를 생산해내고 있는가를 살펴보았다. 또한 이를 기초로 하여, 영화 해독 방식과 관객이 영화를 해독하는 방식 저변에

68) <https://movie.naver.com/movie/bi/mi/reviewread.nhn?nid=901408&code=58018&order=#tab>

69) <https://movie.naver.com/movie/bi/mi/reviewread.nhn?nid=890726&code=58018&order=#tab>

70) <https://movie.naver.com/movie/bi/mi/reviewread.nhn?nid=786613&code=58018&order=#tab>

71) <https://movie.naver.com/movie/bi/mi/reviewread.nhn?nid=862067&code=58018&order=#tab>

72) <https://movie.naver.com/movie/bi/mi/reviewread.nhn?nid=860201&code=58018&order=#tab>

칼린 사회·문화·정치·제도·역사의 영향관계를 분석하였다

상술한 내용을 살펴보면, 한국, 중국, 대만의 관객은 문화, 정치, 사회, 역사, 이념 등의 차이로 인하여 동일한 영화에 대해 각기 다른 관점에서 영화를 해석하는 경향을 보이며, 이로 인해 독특한 수용 방식을 보임을 알 수 있다.

먼저, 중국에서의 <화려한 휴가> 수용방식은 크게 네 가지로 구분된다. 첫째, 영화에 나타나는 5·18광주민주화운동의 묘사를 통해 6·4 천안문사태에 대한 기억을 재구성하고, 자국의 민주화운동에 대해 평가하고 반성하는 태도이다. 둘째, 한국의 5·18광주민주화운동과 한국의 민주주의에 대해 긍정하는 태도이다. 셋째, 비극적 역사에 대한 한국의 반성적 태도를 긍정적으로 평가하며, 동시에 문화대혁명, 천안문사건 등 중국에서 금기시하는 역사에 대한 은폐 및 회피의 시도를 부정적으로 평가하는 태도이다. 넷째, 5·18광주민주화운동이나 민주주의에 대한 부정적 평가 혹은 5·18광주민주화운동의 결과를 부정적으로 인식하려는 태도이다.

다음으로 대만에서 <화려한 휴가>의 수용방식 역시 크게 네 가지로 구분된다. 첫째, 5·18광주민주화운동을 소재로 한 <화려한 휴가>를 통해 2·28사건, 백색테러, 미려도사건 등과 같은 대만의 비극적 역사를 환기하고, 대만의 비극적 역사에 대해 평가하는 태도이다. 둘째, 민주화에 대한 자신의 이해를 나타내는 태도이다. 셋째, 한국의 5·18광주민주화운동 당시 미국의 묵인에 대한 비판과 그에 따른 반미기조를 나타내는 태도 및 대만의 미려도사건 당시 대만에 만연했던 반미기조에 대한 동의하는 태도이다. 넷째, 영화적 서술과 역사적 사실에 대한 불명확한 이해와 5·18광주민주화운동에 대한 오해이다.

마지막으로 한국에서 영화 <화려한 휴가>는 중국, 대만보다 훨씬 복잡한 형태로 수용되고 있다. 특이한 점은, 영화 <화려한 휴가>에 대한 한국 관객의 평점이 1점과 10점으로 양극화되어있으며, 각각의 리뷰의 내용 역시 정치적 견해의 차이로 인한 5·18에 대한 상반된 평가가 전제되어 있다는 점이다. 즉, 역사적 사실에 대한 평가와 인식의 차이가 영화에 대한 평가와 수용방식에도 크게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것이다. 영화 <화려한 휴가>에 대한 한국 관객의 수용 방식은 크게 다섯 가지로 분류할 수 있다. 첫 번째는 5·18에 대한 부정적 평가와 인식을 바탕으로 한 폄훼와 왜곡의 태도이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5·18의 역사적 의의에 대한 긍정 및 광주 시민의 시민의식에 대한 긍정적 인식이다. 상술한 두 수용방식은 그 관점과 태도에 있어 극단적인 괴리를 보인다. 이는 상술한 바와 같이 정치적 견해의 차이로 인한 5·18에 대한 평가와 인식의 차이로 인한 것이라 할 수 있다. 세 번째는 5·18에 대한 자신의 무관심을 반성하고 5·18에 대한 기억을 다짐하는 태도이다. 네 번째는 계엄군에 대한 동정을 표하거나 혹은 계엄군의 입장에 대한 이해를 시도하려는 태도이다. 다섯 번째는 기억의 매개체로서 영화에 대한 평가이다. 사실, 영화에 대한 평가 역시 5·18에 대한 평가와 인식의 차이에 따라 나뉘는 경향을 보이고 있으나, 영화 자체를 부정적으로 평가하는 경우 대부분 5·18에 대한 왜곡된 사실과 의도적인 폄하를 위한 것으로 나타난다.

종합적으로, 한국, 중국, 대만 관객의 대부분은 5·18광주민주화운동의 역사적 의의와 한국의 민주화 운동, 그리고 5·18의 영화화에 대해 긍정적인 태도를 나타내고 있다. 또한, 영화 <화려한 휴가>를 통해 한국의 5.18민주화운동과 자국의 역사를 평가하는 태도를 나타냄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세 나라 모두에서 5·18광주민주화운동에 대한 불명확한 이해와 왜곡으로

인해 오해 혹은 폄훼 하고 있는 현상이 소수이지만 존재하고 있음도 알 수 있다. 주목할 점은, 비록 세 국가에서 오해와 폄훼의 현상이 모두 나타나고 있으나, 대만과 중국 관객의 5·18에 대한 오해와 한국 관객의 5·18에 대한 오해의 근원이 다르다는 점이다. 대만과 중국 관객은 5·18광주민주화운동에 대한 정보와 이해의 부족으로 인해, 영화 <화려한 휴가>에 나타난 영화적 묘사 및 부득이한 사실의 변형 등을 역사적 사실로 인지하는 경향을 보이는 반면, 한국의 관객은 본인의 정치적 성향 혹은 역사적 관점에 따라 5·18광주민주화운동을 선택적으로 인지하며, 의도적으로 5·18을 부정하고 폄훼하는 경향을 보인다는 점이다. 이 같은 오해와 폄훼의 생성을 막기 위해서는, 영화 제작 단계에서부터 역사적 사실 관계에 대해 명확히 하고, 정확한 고증을 통해 역사를 재현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 또한, 지속적인 역사 교육과 홍보를 통해 5·18광주민주화운동의 진실을 한국의 대중은 물론 해외에 알리는 것 역시 중요하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은 조속히 5·18광주민주화운동에 대한 의도적인 왜곡을 금지시키고, 여전히 감추어져 있는 5·18의 진실을 명백하게 규명함으로써, 왜곡과 폄훼의 시도를 근본적으로 막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참고문헌】

- 강승묵, 「애니메이션 <Birthday Boy>가 구성하는 기억의 사회성과 문화적 기억에 관한 연구」, 『애니메이션연구』, 5(3), 2009.12. (라만 셀던·피터 위도우슨·피터 부루커 지음, 정정호·윤지관·정문영·여건중 옮김, 『현대문학이론』, 경문사, 2014.)
- 금화조, 「영화 <화려한 휴가> 관람이 정치태도의 변화에 미치는 영향 - O₁ -S-O₂ -R 모델을 중심으로」, 『한국언론학보』, 52(2), 2008.
- 리샤오양, 「중국 수용자의 한국 영화 수용에 관한 연구 — 영화 <씨니>의 감상문 분석결과를 중심으로」, 부산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13.
- 문재철, 「재현 테크놀러지와 영화적 기억 — 영화 경험의 문제를 중심으로」, 『영화연구』, 제17권, 2001.
- 유명진, 「동시대 픽션영화를 통해 본 한국 관객의 능동성 — 영화 <26년>을 중심으로」, 성균관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14.
- 이문자·이영주·김현희, 「일본 관객들의 한국 영화 수용에 관한 연구 — 영화 텍스트에 대한 해석과 의미화를 중심으로」, 『일본학연구』, 제21집, 2007.05.
- 이인택, 「한중 교류 현황과 전망」, 『중국학』, 제29권, 2007.
- 임경규, 「문화산업과 5/18의 재현 — <화려한 휴가>의 한계와 가능성」, 『라깅과 현대정신분석』, 12(2), 2010.
- 임정택·신양섭 지음, 『영화를 어떻게 읽을 것인가』, 연세대학교 대학출판문화원, 2006.
- 정경훈·김바로·김민규·장예빛·방정식·임우빈, 「영화 수용과 지배욕망: 트위터, 영화리뷰에 대한 정신분석적 텍스트마이닝을 통한 <명량> 수용 분석」, 『비평과 이론』, 제22권 2호, 2017.
- 조상환, 「'5·18 광주민주화운동' 소재 영화 속에서의 시선에 관한 연구 — 영화 <택시운전사>를 중심으로」, 중앙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18.
- 황인성·강승묵, 「영화 <꽃잎>과 <화려한 휴가>의 영상 재현과 대중의 기억(Popular Memory)이 구성하는 영화와 역사의 관계에 관한 연구」, 『영화연구』, 제35권, 2008.
- H·R 姚斯·R·C 霍拉勃 著, 『接受美學與接受理論』, 遼寧人民出版社, 1987.
- 楊遠嬰 主編, 『電影概論』, 北京聯合出版公司, 2017.
- 朱立元, 『接受美學導論』, 安徽教育出版社, 2004.
- _____, 『当代西方文艺理论』, 华东师范大学出版社, 2005.
- Sun Xin, 「Analyze The Differences And Similarities Of Chinese And South Korean Historical Movies By Comparing Lifetimes Living And A Taxi Driver」, 『Journal of the Korea Entertainment Industry Association』, 11(7), 2017.10.

【논문초록】

키워드 Key Words	중문	电影《华丽的休假》，影评，观众接受理论，民主化，期待视野		
	영문	Movie "May 18", Audience Review, Audience Reception Theory, Democratization, Horizon of Expectation		
<div>Understanding of 'Democratization' in Korea, China and Taiwan : Focused on Audience Review of Movie "May 18"</div> <div>Lee, Ga-Young</div> <p>This study sees the movie "May 18" as a visual text that preserves, reproduces, and diffuses the memories of democracy and democratization movement, and comprehends the meaning codes of visual texts in Korea, China and Taiwan By recognizing it as an "active consumer" who interprets movies based on his own horizon of expectation, and explores how Korean, Chinese and Taiwanese audiences interpret the movie "May 18" and what social, cultural and personal meaning they are producing. Based on this analysis, we analyze the influence of society, culture, politics, institutions, and history on the way the audience interprets the movie. And I intend to find answers to the following three research questions.</p> <p>Research Question 1) How did the audience of Korea, China, and Taiwan interprets the movie "May 18"?</p> <p>Research Question 2) How do the audience of Korea, China and Taiwan perceive the 518 Gwangju democratization movement, which is the spatio-temporal and the historical background of "May 18"?</p> <p>Research Question 3) What are the similarities and differences in the attitudes toward democratization movements of South Korean, Chinese, and Taiwanese audience that watched the movie?</p>				
저 자 인적사항	성 명	이가영 / 李嘉英 / Lee, Ga-Young		
	소 속	전남대학교 인문대학 중어중문학과		
	Em@il	zgljiaying@naver.com		
논 문 작성일시	투 고 일	2019년 05월 19일	심 사 일	2019년 05월 23일
	수 정 일	2019년 06월 15일	게재확정일	2019년 06월 18일